

2) 오늘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성경의 세계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저 문장을 붙들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 문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 읽기와 비슷합니다. 이상국 시인의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에 실린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이라는 제목의 시 셋째 연은 이렇습니다. “안가 본 데가 없는 비는/ 들을 지나고 징검다리를 건너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기도 한다. 빗소리에 더러 소식을 전하던 그대는/ 어디서 세상을 건너는지” 비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린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누구일까요? 첫사랑인가요, 이를 수 없는 사랑인가요, 사고로 죽은 아들이나 딸이나 친구인가요. 야곱은 이 삭막한 광야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의 하나님 경험이 실제로 무엇일까요?

3) 야곱의 두렵다고 한 이유는 외롭다거나 앞길이 막막해서 불안하다거나 중간에 강도를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삶과 세상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새로워졌기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아주 낮은 곳인데도 그는 평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없는데도 가장 가까운 어떤 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요 평화였습니다. 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약을 먹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4) 우리는 일상을 맛있게 살기에 야곱의 이런 경험이 멀리 느껴집니다. 기껏해야 맛있는 음식이나 티브이 연예 프로그램이나 영화감상으로 일상의 지루함을 버텨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경험은 흐릿해지고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는 나이를 먹으면서 쇠약해지나 하나님 경험은, 즉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은 날로 예민해지고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마 28:20(b)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뱀엘 광야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실 겁니다. 삶이 고되거나 지루해도, 간혹 비루하게 느껴져도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실에 눈을 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7월30일

성령강림 후 9주

세계 교회력 「가」해 36주



호박잎과 호박꽃이다. 수년 전 ‘대구성서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이다. 호박의 생명력은 거의 천하무적이다. 요즘은 호박 철이고, 호박 종류도 많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이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감당해야 할 인식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최선은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완성하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 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영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천둥소리와 개구리 소리,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까마득히 먼 곳에서 달려오는 별빛, 그리고 꽃과 풀과 나무의 온갖 색깔에도 가득하며, 우리의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가득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영광송)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8월 첫 주(6일) 예배 후에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 8월 첫 주에는 정목사님의 개인일정으로 전교우 식사가 없습니다.

* 8월 셋째 주(20일)는 대관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 지난주일(7월 23일) 헌금: 730,000원(주일헌금 10,000원, 통장헌금 72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8, 9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8월 6일	정용섭목사	김기범집사/ 김용성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8월 13일	이춘우목사	윤혜정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아트컬리지5
8월 20일	온라인 예배			
8월 27일	김동호목사	오미영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5
9월 3일	정용섭목사	윤혜정집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9월 10일	이춘우목사	김용성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시청각실

지난주일(7월23일) 설교 발췌

제목: 여기 계신 하나님 (창 28:10~19a))

1) 야곱이 길을 가던 어느 날 나중에 벵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장소까지 왔을 때 해가 저물었습니다. 호텔은 물론이고 주막집도 없습니다. 동행도 없습니다. 그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딛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 중의 하나인 하란으로 가는 중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높은 건물이나 탑에 관한 이야기를, 즉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아홉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흠어지십시오. 그 일상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늘나라가 은폐의 방식으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공동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성취하려는 강요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생명을 파괴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들을 힘들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떼제 찬송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 3회 ... 다 함께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Lau -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세현

정세현



1. 하 나 님 뜻 대로 이 세 상 창조 하 시고 우리 의 평 화 약 속 하 신 주
2. 하 나 님 당 신 의 정의 와 사 랑 평 화 는 우리 의 가 습 일 령 입 니 다



자 유 와 평 화 와 사 랑 의 꿈 을 위 해서 우리 는 모두 기 도 합 - 니 다
내 려 라 단 비 야 사 랑 의 꿈 을 위 해서 우리 의 가 습 터 져 붓 - 도 록



이 세 상 모 두 가 사 랑 의 마 음 이 라 면 우리 는 모두 행 복 하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정의 마 음 이 라 면 우리 는 모두 행 복 하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사 랑 과 평 화 뿐 이면 우리 는 기 뻔 노 래 하 -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믿 음 과 소 망 이 라 면 우리 는 기 뻔 노 래 하 - 겠 네



어 허 야 어 야 디 야 어 허 야 어 야 디 야 어 기 야 디 야 어 야 디 어 차



어 허 야 어 야 디 야 해 방 을 위 해 우 리 모 두 예수 의 길 을 걷 게 하 - 소 서
어 허 야 어 야 디 야 평 화 를 위 해 우 리 모 두 예수 의 길 을 걷 게 하 - 소 서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민음의 백성들에게 복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말씀 창세기 29:15~28 ... 고중흥 집사

성시교독 시편 105:1~11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우리주께 감사하며 그의이름 찬양하라 그가하신 모든일을 만민에게 알리어라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루신일 소리높여 외치어라
우리주님 거룩하신 그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찾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어라
-우리주님 힘써찾고 그의능력 사모하며 언제든지 우리주님 사모하며 경배하라
주님께서 손수행한 놀라운일 기억하며 기사이적 잊지말고 그판단을 명심하라
-아브라함 자손들아 야곱자손 후손들아 그가바로 우리주님 하나님이 되시니라
공의로운 그의판결 온세상에 미치누나 손수맺은 그언약을 영원토록 기리리라
-자손만대 그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바로이것 우리주님 손수맺은 언약이며
이삭에게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로서 이스라엘 지켜야할 영원하신 언약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말씀을 주셨구나 가나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리라

둘째말씀 로마서 8:26~39 ... 고중흥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13:31~33, 44~50 ... 고중흥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주님 말씀 복되어라) ... 다 함께



설교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 ... 박재진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 다 함께